

<난민 인터뷰 스킬>¹⁾

1. 전반적인 주의 사항

- 기대를 가지고 인터뷰에 임함.
- 공감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
- 난민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함.
- 인터뷰 하면서 다른 난민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함.
- 신청인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인터뷰의 방향을 정함 (e.g. 소송의 경우 거부처분 사유 확인)
- 난민요건충족여부확인이라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하지만 그 방향에만 너무 집착해서 흐름을 끊지 않도록 주의
- 신청인의 심리상태(트라우마, 불안, 분노, 슬픔 등)를 고려 함.

2. 인터뷰 준비

-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진술서를 받아 인터뷰 전에 확인
- 신청인이 기존에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, 증거자료, 난민지위인정 관련서류 및 난민 NGO에 접수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검토
- 서류준비 (난민지위인정 신청서, 단체접수서류, 대리위임신청서, 비밀유지서약서 등)
- 젠더 센서티브 (e.g. 여성인 경우 여성 인터뷰어와 여성 통역관,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석)
-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진술을 보충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선별
- 난민 신청인의 출신국 정보에 대한 리서치(기본적인 정부조직, 인권상황, 지리적 특징, 여성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문화적 태도, 사법시스템 등.)
- 통역인이 섭외되면 인터뷰 날짜를 정함.
- 통역 경험 및 신청인의 종교와 문화, 인종, 정치적 그룹 등을 고려해서 통역인을 선정.
- 충분한 시간을 확보

3. 인터뷰 시작 단계

가. 통역인과 인터뷰어의 위치 잡기

-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통역관은 보조적인 위치로
- 통역이 신청인 보다 먼저 오도록 할 것.
- 면담시간 준수
- 통역인에게 비밀 유지에 대해 일러둘 것. (비밀유지서약서 서명)
- 통역인에게 신청인이 진술한 것만, 신청인이 진술한 것은 모두 통역할 것을 일러둘 것.
- 통역인에게 메모지 제공
- 자료 사본 작업

나. 편안하고 신뢰할 만한 인터뷰 분위기 만들기

- 신청인을 기다리게 하지 말 것.

1) interviewing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(RLD4) 참조

- Eye contact
- 자기 소개 (당국과 무관함을 강조)
- 신청인을 어떻게 소개를 받았는지 설명
- 통역인 소개(통역인과 신청인이 짧게 이야기 하도록 함)
- 악수로 웃으며 맞이하고, 차를 대접하기
- 신청인의 이름을 연습해서 외울 것.
- 정장의 옷차림은 피할 것.
- 동석한 사람이 남편이라도 불편한 경우 있음.
- 인터뷰가 중간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할 것.
- 밖으로 진술이 들리지 않아야 함.
- 충분한 휴식을 줄 것.

다. 설명하기

- 인터뷰의 목적
- 난민인정 절차
- 난민의 정의(공포, 충분한 근거, 5가지 사유에 의한 위해, 위해가 박해에 해당함)
-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
- 비밀 보장에 대해서 설명

3. 본격적인 인터뷰

-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고 적절하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 하면서 방향을 조절하고 진술을 구체화 할 것(개방형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역동성 있는 인터뷰가 되도록 할 것)
- 개방형 질문은 신청인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.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방향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으며 주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게 될 경향도 있음. 신청인이 교육을 많이 받거나 자기 사건에 대해 정리가 된 경우에는 적절함. 진술의 방향이 잘 조절 되고 있는 경우에는 “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?”라는 질문으로 충분함.
- 날짜 및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. (정확하지 않은 경우, ‘경’, ‘즈음’, ‘그러나 확실하지 않음’을 기재해야 함.)
- 유도심문은 바람직하지 않음. (인터뷰어에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해 동의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.)
-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고려해서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함. (e.g. 경찰/군인/보안군/반군/성폭행/아버지/캘린더/여동생)
- 눈을 마주쳐야 함. (진술하는 동안 오랫동안 페이퍼나 컴퓨터를 보거나 통역관을 보지 않도록 주의)
- 신청인과 직접 이야기해야 함. (통역인과 대화하듯이 대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)
- 통역인을 고려하여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사용
- 신뢰와 공감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중립적인 자세와 표정을 유지해야 함. (얼굴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젓는 행동, 그리고 한숨을 쉬거나 심지어 책상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됨. 약간의 추임새는 좋지만 과도한 감정이입은 삼가야 함.)
- 신청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. (신청인이 주변 이야기를 장황하

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거나 요령이 없다고 쉽게 판단하지 말 것.)

-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 것. (e.g. 보조경찰)
-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. (e.g. 박해)
- 준비한 질문지에 메이지 말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질문할 것. (나중에 말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말은 무의미 함. 미리 준비된 질문지는 인터뷰 방향과 빠진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분함.)
- 사실과 진술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.
- 다그치거나 취조하는 식으로 질문하지 말 것.
- 모순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도할 것.
- 모순이 되어 보이는 부분은 인터뷰어의 실수로 돌리면서 모순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함. (신뢰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)
- 인터뷰를 하면서 증거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할 것.

4. 인터뷰 마무리

-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 봄.
- 인터뷰 이후의 일정 설명
- 관련 증거들 및 추가 자료 요청.
- 난민인정문제 이외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 할 것(e.g. 핸드폰 개설, 은행계좌 열기, 병원, 출생등록 등)

5. 인터뷰 정리(문서화 및 평가)

가. 문서화

- 정확하고 상세한 문서화
- 인터뷰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됨.
- 간단한 메모 후에 나중에 상세하게 보충 그리고 신청인과 함께 리뷰
- 스펠링, 날짜, 체포와 구금의 기술 확인
-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후에 면담기록부를 바로 정리해야 함.

나. 평가보고서 작성

- 입증의 어려움(e.g. 미래 사건 예측, 맨손 탈출, 트라우마로 인한 진술의 불일치, 증거 수집의 어려움, 난민협약의 인도적 정신)
- 입증정도는 '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'와 관련

다. 사건 진행 및 추가 인터뷰 여부 결정

5. 기타

-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진술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음. 예를 들어 중요한 사건 또는 사건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이 부정확하게 됨.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이 항상 부정직하다고 볼 수 없음을 염두 해야 함.
- 진단서(기억력의 문제, 무의식)
- 정보를 숨기는 이유가 있음을 염두 해야 함. (당국 자체를 신뢰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

해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. 인정절차에 대한 불신 및 난민인정 거부시 조치에 대한 불안 또는 통역관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인함.)

- 자존감 상실 우려로 인한 진술의 거부. (남성일 경우,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 왔다는 진술을 하기 힘들어 함. 여성의 경우, 성추행을 당한 진술에 대해 어려움이 있음.)
- 신청인의 지적인 상태 살펴야 함. (e.g. 숫자를 모르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)
- 어떤 문화에서는 남성들이 하는 일을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음. (e.g. 코트디브아르 케이스)
-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인터뷰하지 않음.
- 강간 피해자의 경우, 신청인이 말하는 방식대로 들어주고 절대로 채근하지 않도록 주의. 적절한 반응을 보이되, 필요 이상으로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묻지 않도록 함. (신청인이 준비되었을 때 말을 하도록 함.)